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을 함

메세지 1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 아래서 생활함

성경: 마 5:3, 8; 6:33; 요 3:3, 5-6, 15; 행 24:16; 롬 5:17; 고전 2:11

- I.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간 이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영에 속한 직감에 의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도록 회복되어야 한다 — 마 5:3, 고전 2:11, 막 2:8
- A. 무죄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을 본다. 양심의 시대에서는 자아의 다스림의 원칙을 보고 인간 정부의 시대에서는 사람의 다스림의 원칙을 본다.
1. 타락 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았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있었다 — 창 2:16-17
  2.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사람 속에 양심을 확립하셨다 — 행 24:16.
  3. 홍수 후에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지도 않고 자신의 통치에도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다 — 창 9:6, 롬 13:1.
- B. 통치의 관점에서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자신의 통치로,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통치에서 사람의 다스림으로 타락한 것이다.
- C.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인간의 통치로 하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를 인간의 통치에서 신성한 통치로 회복하시어 사람이 다시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 아래 살도록 하셔야 한다 — 마 5:3, 8, 6:33.
- D.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 안에서 사람은 반드시 인간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까지, 그 사이에 자신의 통치를 통과하여 자신의 발자취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 E. 양심을 처리하는 것의 최종 목표는 단지 우리를 자신의 통치로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고 우리를 하나님 자신께로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마 5:3.
- F. 자신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1. 자신의 통치는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우리의 양심의 느낌에 의해 사는 것을 의미한다 — 행 24:16.
  2.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우리의 영에 속한 직감에 의해 사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직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즉 하나님께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 a. 우리의 영 안에는 사물을 깨닫고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직감이다 — 고전 2:11, 막 2:8.

- 1) 직감은 하나님에 속한 직접적인 느낌이며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다.
  - 2)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직감은 하나님의 느낌이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속하고, 영에 속하며 생명에 속한 것만을 받아들인다 — 롬 8:2.
- b. 우리가 우리의 직감에 의해 살고 우리의 직감에 의해 통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는다.

II.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느낌에 따라 우리의 영의 직감에 의해 산다 — 롬 8:6:

- A. 신성한 생명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강하며 가장 예민한 느낌을 가진 가장 높은 생명이다(엡 4:18). 이 느낌이 생명의 느낌이다.
- B. 생명의 느낌은 우리가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사는지 아니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사는지,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사는지 아니면 그 영 안에서 사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게 한다 — 롬 8:6.
- C. 생명의 느낌은 우리를 안내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며 인도한다 — 롬 8:4.
- D. 우리는 평안, 안식, 강함, 만족, 해방, 생생함, 적셔짐, 밝음, 위로 등의 긍정적인 느낌들을 가진 생명의 느낌에 의해 하나님의 왕국의 실재 안에서 산다 — 롬 8:6.
- E.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왕국을 안다—요 3:3,5-6,15.
- F. 하나님의 왕국은 그 실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실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 아래서의 신성한 생명에 속한 생활이다 — 마 5:3, 8, 20, 6:33, 7:21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

메세지 2  
왕국과 교회

성경: 마 16:18-19, 18:15-22, 롬 14:17, 계 1:6, 골 1:12-13

- I. 성경은 먼저 왕국을 제시하고 그 후에 교회를 제시한다. 왕국이 있을 때 교회가 산출된다 — 마 4:23, 16:18-19.
- II. 왕국은 교회의 실재이다. 그러므로 왕국 생활을 떠나서 우리는 교회생활을 할 수 없다 — 마 5:3, 16:18-19, 계 1:4-6, 9:
  - A. 천국의 실재(마 5-7 장)가 교회생활의 내용이다. 왕국의 실재가 없다면 교회는 공허한 것이다.
  - B. 왕국 생활이 교회생활을 산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적으로 왕국 생활 안에서 살 때 자연스럽게 교회생활을 하게 된다 — 롬 14:17.
  - C. 왕국의 실재 안에 살지 않는 믿는 이는 교회의 구조물 안으로 건축될 수 없다 — 엡 2:22.
- III. 교회의 실재인 왕국이 없다면 교회가 건축될 수 없다 — 마 16:18-19:
  - A. 교회는 왕국의 권위를 통해 존재하게 된다.
  - B. 교회 건축을 가능하게 하도록 왕국 열쇠들이 주어졌다 — 마 16:19, 18:18, 비교 요 20:23.
  - C. 천국이 한 무리의 믿는 이들에게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이 믿는 이들은 교회로 건축될 수 있다 — 골 2:19, 엡 4:15-16.
- IV. 진정한 교회는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오늘날 믿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왕국 생활을 한다 — 마 16:18-19, 18:17-18, 13:44-46, 롬 14:17, 고전 4:20, 엡 2:19, 골 4:11, 계 1:4-6:
- V. 아버지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다 — 골 1:12-13:
  - A.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은 세 시대, 곧 교회가 존재하는 현시대와 천년왕국이 있을 다 가을 시대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있을 영원한 시대로 이루어진다 — 골 1:13.
    1. 골로새서 1 장 13 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며, 이 왕국이 곧 교회의 실재이다.
    2. 오늘날 교회생활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며, 이 왕국은 하나님의 아들만큼이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다 — 골 4:15-16.
  - B.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인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 골 1:13:
    1.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한 생명의 체현과 표현이다. 따라서 아들의 왕국은 생명의 영역이다 — 요일 5:11-12, 요 1:4.

2. 우리가 옮겨져 들어간 왕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다. 이 생명의 영역은 두려움 안에 있지 않고 사랑 안에 있다 — 골 1:13.
3.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인 왕국은 생명과 빛과 사랑이 충만한 영역이다 — 벧전 2:9.
4. 아버지의 아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표현이시다 — 요 1:18, 4, 요일 1:2:
  - a.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부활 안에 있는 권위를 가지시고 신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체현이 되신다 — 마 3:17
  - b. 신성한 생명의 체현이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시다 — 마 17:5:
    - 1) 아들 안에 체현된 신성한 생명은 신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 요일 5:11-12, 요 3:16.
    - 2) 신성한 사랑의 대상은 부활 안에 있는 권위를 가지시고 신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체현이 되신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다.
5.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아들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 요일 5:11-12:
  - a. 부활 안에 계신 아들은 지금 생명 주시는 영이시고,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사랑으로써 우리를 통치하신다 — 벧전 1:3, 롬 6:4-5, 고전 15:45 하.
  - b. 우리가 부활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신 아들에 의해 살 때, 우리는 그분의 왕국 안에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누린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생활을 한다 — 골 3:4, 요 6:57.
  - c.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은 유쾌한 것, 곧 기쁨의 문제이다 — 마 3:17, 17:5.